

— EIAK 소식 —

'93 신개발 전자부품 및 국산화 대상부품 전시회 개최



본회는 전자부품·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부품소재의 국산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회(회장: 구자학),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소장: 김정덕), 전자신문사(사장: 김상영)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상공자원부가 후원하는 '93 신개발 전자부품 및 국산화 대상부

품 전시회가 본회 대회의실에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성황리에 전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삼규 상공자원부 제2차 관보, 구자학 본회회장, 김상영 전자신문사 사장, 김정덕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 엄길용 전자부품산업협의회 회장 등 많은 부품소재 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내 전자부품소재산업은 전자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면서도 매우 취약해 상당부분을 외국, 특히 일본으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일 역조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 공급중인 업체들도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로서 그 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여기에 최근에는 일본 엔화의 급절상으로 수입자재가 급등하고 있어 기업의 채산성 악화하는 물론 수출경쟁력까지 크게 약화시켜 가고 있어 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신정부에 의해 개발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외제 수입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추어 국산개발의 큰 어려움을 겪게까지 하고 있어 어느 분야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즉 부품 사용업체와 부품개발, 생산업체간의 협력이 절실한 바 이번 전시회는 최근 전자부품업체들이 각종 핵심부품개발 노력이 가시화돼 국산화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이같은 부품 국산화 성공은 전자업계가 그동안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주력해 와 개발품목들이 양산으로까지 이루어짐으로서 판로만 확보될 경우 국내 전자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게 됐다.

전자산업 해외투자협의회 창립총회



본회는 지난 6월 22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국제화에 따른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주)금성사 등 3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산업 해외투자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내 업계는 그동안 해외투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정보미흡, 특정지역에서의 과당 경쟁 등을 일으켰는데 이번 창립된 동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투자환경 공동조사, 정보교환, 대정부 정책건의 등 공동협의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삼미기업(주) 류인호 사장이 동협의회 회장으로 선임 됐으며, 감사에 보성화림(주) 임흥규 사장, 미주분과위원장 삼성전자(주) 이재경이사, 구주분과위원장 해태전자(주) 허진호상무, 동남아분과위원장 카멘전자(주) 조경호사장, 북방분과위원장 (주)금성사 조기송이사, 중국분과위원장 태일정밀(주) 정강환사장 등이 선임됐다.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의 문제점과 그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발표회 개최

본회(회장 具滋學)와 한국광학기기협회(회장 紅彩鏞)에서는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의 문제점과 이로인한 우리산업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발표회를 '93년 6월 23일(14:00)일 한국종합전시장(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동서종합법률사무소의 오승진 변호사와 국민대 경제경영연구소 이국철 교수가 각각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사적복제 보상금제도가 우리산업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회를 갖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 공테이프 제조업체들의 의견수렴 및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과 국내전자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등 경제 전반에서부터 소비자가 안게되는 부담까지 심도있게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가 정리되었다.

이날 오승진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금제도는 그 자체가 법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고, 동제도가 저작권자에게 이중보상을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했다.

또한 현 저작권법상 부과금제도는 엄연한 준조세 성격임이 강조되었다.

이어 이국철 교수는 사적복제 보상금제가 우리산업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즉 현재 전



사업계가 안고 있는 현행 부담금만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등 12종류에 달함과 '91년 전자산업 전체 순이익률이 0.3%인 점을 들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동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또한, 동제도 도입은 대상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한자리 물가정책에도 역행함을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원천소득 징수 방침 철회 건의

본회(회장: 구자학)는 금번 국세당국이 S/W 도입대가에 대해 원천소득을 소급 추정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면서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게 됨에 따라 이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정보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로 보고 업계의 뜻을 모아 상공자원부, 재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의 철회를 건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국가사회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른 대가의 대외지급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소득을 징수할 방침이며 또한 '88년 6월부터 '92년말까지 도입된 소프트웨어까지 소급하여 추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이의 철회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5page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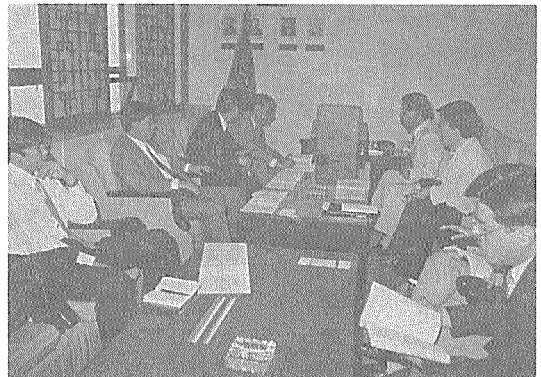
ITC 관련 국제특허세미나 개최

지난 6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본회와 전자신문사 공동으로 ITC 관련 국제특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 특허전문법률 사무소 Finnegan Henderson 변호사의 ITC에 대한 소개 및 33개조의 일반적인 검토를 설명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ITC의 사법권, ITC의 절차, 보상규정, ITC 결정의 제고, ITC 소송대응책 등에 관해서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특허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이 적고 특허전담조직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무역 제재차원에서 시간이 적게 걸리고 직접적인 규제를 취할 수 있는 ITC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빈발, ITC 소송절차, 대응절차, 구제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되었다.

중국과학기술위원회 일행 본회 내방



본회는 지난 6월 28일 중국과학기술위원회 唐新民 사장의 예방을 받고 박재인 진흥이사와 한·중 전자기술협력을 위한 양국간 상호 교류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박재인 이사는 국내 전자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중국의 전자산업을 비롯한 제품전시회에 한·중 상호 협조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디 스플레이분과위원회(삼성전관(주) 박경팔 사장)는 지난 93년 6월 3일 삼성전관(주) 종합연구소에서 오리온전기(주) 등 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28" 16:9 브라운관 Lug 위치와 CRT용 유리의 형명규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콘 덴서분과위원회(알루미늄코리아(주) 박주영)는 지난 93년 6월 11일(금) 대우전자부품(주) 등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품질시험 규격에 대하여 잠정 합의 하였으며 또한 지난 93년 6월 15일(화) 극광전기(주) 연구소(인천시)에서 금성사 등 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전압필름 커패시터 규격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공장자동화추진협의회

동 협의회(회장 : 삼성항공(주) 이대원 사장)는 지난 6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서호전기 이상호 사장 등 11명이 참석 2/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장자동화 자문사업 등 상반기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는데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공장자동화 자문단 사업 활성화, 해외 자동화 전시회 참관단 파견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발표, 공장자동화의 길잡이 홍보책자 발간 등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대학병원 등 전국 459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료기기 구매계획 실태조사를 벌인다.

동협의회는 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기술개발정책과 전자의료기기 업계의 영업활동 및 기술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